

# 어선 1척서 시작된 김재철의 꿈, 식품서 금융·물류까지

(동원그룹 회장)

##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美 스타키스트 보유 글로벌 성장 국내최초 참치통조림 '동원참치' '잠재력·협동정신으로 도전 극복'

동원그룹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다.

동원그룹은 16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연수원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1969년 원양어선 1척을 보유한 작은 수산회사로 시작한 동원그룹은 50년 만에 수산·식품·패키징·물류 등 식품 중심의 4대 사업 영역을 축으로, 미국 최대의 참치 브랜드인 스타키스트(Starkist) 등 해외 네트워크까지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은 기념식에서 "임직원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힘을 모은 결과 동원은 1, 2, 3차 산업을 아우르



16일 동원그룹이 창립 50주년 행사를 진행했다. /동원그룹

는 6차 산업을 영위하며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도전도 잠재력과 협동정신이 발휘되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그룹은 1969년 4월 서울 명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과 원양어선 1척으로 사업을 시작한 동원산업이 모태가 됐다. 동원산업은 신규 어장 개척과 첨단어법 도입 등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오일쇼크 등 갖은 위기를 잘 넘겨 국내 최대 수산업체로 발돋움했다.

수산업에서 자리잡은 동원산업은

1982년 국내 최초의 참치 통조림인 '동원참치'를 출시하며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했다. 동원참치는 출시 이후 현재까지 한 줄로 늘어놓았을 때 지구 1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양인 62억캔이 넘게 팔렸다.

동원그룹은 1982년 한신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진출했고, 이후 사명을 동원증권으로 바꿔 첨단 금융기법을 잇따라 도입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동원증권은 이후 동원그룹과 계열 분리되어 국내 최고의 증권그룹인 한국투자금융



1969년 8월 동원 최초 어선인 '제31동원호' 출어식에 참석한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동원그룹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동원그룹은 양반김, 양반죽 등 다양한 국민 대표 식품 브랜드를 선보이며 사업을 키웠고, 2000년 종합식품기업인 동원F&B를 설립해 일반 식품은 물론 유가공,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유통까지 사업영역을 성공적으로 확장했다.

동원그룹의 종합포장재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는 대한은박지(2012), 한진피앤씨(2014) 테크팩솔루션(2014), 아르다 메탈 패키징 아메리칸 사모아(현탈로파시스템즈, 2014), 베트남 포장재

기업 'TTP', 'MVP'(2015) 인수를 통해 연포장재 및 각종 기능성 필름을 포함해 PET용기, 캔, 유리병, 알루미늄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종합포장재 기업으로 도약했다.

동원그룹은 이후 2016년 종합물류기업인 동부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며, 물류 사업을 본격 확대했으며, 현재 수산·식품·패키징·물류의 4대 축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 기준 연매출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동원그룹은 2008년 미국 최대 참치 브랜드인 스타키스트 인수를 시작으로 세네갈의 통조림 회사 스카사(S.C.A.S.A), 베트남의 종합포장재기업 TTP·MVP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글로벌 그룹으로서 발돋움했다.

한편 김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 온지 50년 만이다. 김 회장은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서 활약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생물자원' 7월 독립법인 운영

내달 임시주총 거쳐 100% 자회사로 법인명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

CJ제일제당이 생물자원 사업부문의 국내 사업을 물적 분할해 독립법인 체제로 운영한다. 100% 자회사 형태로 물적분할되며, 오는 5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7월 1일자로 진행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생물자원 사업부문 국내사업 분할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공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분할은 생물자원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독립 경영을 통해 국내 사료 사업 본연의 업(業)에 집중하는 한편, 사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양대 주력사업인 식품과 바이오 분야에 역량과 자원을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법인명은 '씨제이생물자원주식회사'이며, 영문 사명으로는 'CJ Feed&Care'를 사용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신현재 CJ제일제당 대표이사와

신영수 CJ제일제당 생물자원본부장이 각각 대표 형태로 맡게 되며, 물적분할 형태인 만큼 유관 임직원은 전원 승계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씨제이생물자원'은 단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국내 사료 사업 분할은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라며 "CJ의 생물자원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오리온 초코파이(중국)

/오리온

## 오리온 '초코파이' 中 브랜드 파워지수 1위

'파이'부문 4년 연속 선정

오리온은 '초코파이'가 중국 대표 기업 브랜드 연구 기관인 'Chnbrand'가 발표하는 '2019년 중국 브랜드 파워 지수(C-BPI)' 파이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오리온은 1000점 만점에 654점을 받아 4년 연속 파이 부문 1위에 올랐다. 중국 브랜드 파워 지수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176개 품목 8700여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충성도, 선호도, 인지도 등을 측정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지수가 높을수록 구매와 입소문으로 직결돼 브랜드의 성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중국에서 '좋은 친구'라는 뜻의 '하오리우(好麗友)' 브랜드로 25년 넘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과자'로 자리매김 했다.

최근에는 중국 내 SNS 인증 문화가 발달되면서 재미있게 제품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 펀(fun) 콘셉트의 이색 패키지를 선보이는 등 젊은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중국 여성들의 입맛에 맞춰 '초코파이 딸기'를 선보이는 등 브랜드 라인업을 확대하며 중국 국민 파이로서의 입지를 한층 굳히고 있다.

/박인용 기자

## 배송상품 '친환경 비닐'로 포장



오늘부터 업계최초 도입

롯데홈쇼핑은 17일부터 상품 배송에 업계 최초로 친환경 비닐 포장재(사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비닐 포장재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바이오매스 합성수지'(사탕수수 바이오 PE)를 원료로 사용해 만들었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는 생산 과정에서 기존 석유 원료의 일반 합성수지(PE)보다 탄소(CO2) 발생량이 70% 가량 감소하며, 환경 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도 입증 받은 소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을 통해 판매되는 LBL, 라우텔, 아이젤 등 단독 패션 브랜드 상품 배송에 친환경 비닐 포장재를 우선 도입한 후 전체 패션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현재 롯데홈쇼핑에서 패션 상품 배송에 사용되는 비닐 포장재는 연간 약 400만 장에 달한다. 이중 단독 패션 상품 배송에 친환경 비닐 포장재 50만 장이 사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약 32.9톤(t)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4984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수종별 표준 탄소 흡수량 지표 기준)에 해당한다. 롯데홈쇼핑은 하반기 중 환경부 친환경 인증 심사를 통해 '환경표지인증'도 받을 계획이다.

/신현선 기자 tree6834@

## 서울유유협동조합

### '치즈의 정석 아몬드' 출시

서울유유협동조합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 가능한 간식 '치즈의 정석 아몬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즈의 정석 아몬드'는 일반적으로 납작한 슬라이스 치즈 형태에서 벗어나 둥글납작한 패키지를 알처럼 까먹는 형태의 포션치즈로 휴대가 간편하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인 칼슘, 비타민A, D<sub>3</sub>, E 및 DHA가 함유됐다. 비타민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이며, 비타민 D<sub>3</sub>는 성장기 뼈 형성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E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 학생들이 영양간식으로 안심할 수 있다.



/박인용 기자

## 유통단신

### 롯데푸드 '자바초코칩카페' 출시

롯데푸드는 커피전문점의 인기메뉴 자바초코칩을 아이스크림으로 재현한 '자바초코칩카페(사진)'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자바초코칩카페는 초코칩 6%, 커피 0.6% 함유로 달콤쌉싸름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카페모카 아이스크림에 초코칩을 넣어 달콤함에 씹는 식감을 더했다.



/박인용 기자

### SPC '말차' 활용 시즌음료 6종

SPC그룹이 운영하는 잠바주스가 하동산 말차를 활용한 시즌음료 6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6종은 100% 하동산 말차를 베이스로 다양한 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